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19:00 06:30 (새 벽) 09:30(중고등부)	
		10:30 (교 중) 10:30 (초등부 소성전) 12:00 (낮)	
		16:00(국제미사) 19:00 (청 년) 21:00 (밤)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일요일 (초등부 미사)		

● 알 림

- 다음주(1/21) 해외원조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주차안내 :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차선내에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 꾸리아 월례모임 10u	1/14(오늘) 오후 2시	지하강당
20u	1/14(오늘) 오후 2시	소성전
30u	1/14(오늘) 오후 4시	지하강당
· 만나회 월례회의	1/15(월) 오전10시	6교실
· 제대회 월례모임	1/16(화) 오전11시	1교실
· 사목위원회	1/19(금) 저녁 8시	지하강당
· 울뜨레아	1/21(일) 교중미사 후	지하강당
· 임원모임 (반, 구역장, 형제회장, 사목위원)	1/24(수) 저녁 8시	지하식당

● 예비신자 교리반

(일) 낮 12시	정홍자 로마나
(화) 저녁 8시	이민규 엘리야 신부님
교리반 등록	1/14(오늘)까지
현재 예비자 인원	34명 시작교리 반 12명

● 대중 아기 축복식

- 일 시 : 1/20(토) 저녁 7시 토요주일미사 중
- 대 상 : 소중한 생명을 가지신 임산부

● 자녀들을 위한 기도모임

- 일 시 : 1/12(금) / 저녁 8시
- 장 소 : 피정방
- ※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모임입니다.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

- 일 시 : 1/28(일) 교중미사 후
- 장 소 : 주임신부님 사무실
- ※ 구역장·반장님은 전입교우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참석바랍니다.

● 보스코 성가대(교중미사)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1.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2.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개별 면접
3. 제출방법 : 메일 발송 및 우편접수
가) 메일주소 : johncho@nate.com
나)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4. 보수 : 면접시 협의 (우편번호:08375)
5. 제출기한 : 채용시까지(수시채용)
6. 문의 : 보스코 성가대 단장 010-8949-7142

● 청년성가대 반주자 모집(저녁 7시 미사)

- 미사와 전례를 도와주고 성 음악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임입니다.
- 연습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5시
- 문 의 : 박훈신 요한보스코 010-5494-6894

● 2018년 사목협의회 명단

봉 사 직	성 명	세 례 명
총 회 장	황태영	프란치스코
부회장(여성총구역장)	이미자	도나다
남성총구역장	박용환	안토니오
총무(기획분과)	최석준	마르코
전례분과장	이성일	요한
교육분과장	최경희	안젤라
선교분과장	최영만	베드로
사회사목분과장	황원선	효주아네스
시설관리분과장	박홍식	모이세
노인분과장	오순남	크리스티나
재정분과장	권태희	안나
가정/생명분과장	이화봉	안토니오
청년분과장	최승일	다니엘
남성 1지역장	이운영	요한
남성 2지역장	김봉기	발토로메오
여성 2지역장	김영옥	마리아
남성 3지역장	서원교	세례자요한
여성 3지역장	김미향	다니엘라
남성 4지역장	옥윤필	마티아
여성 4지역장	배영숙	마르타

● 구역미사 안내

- 전반기(3~6월) 한번, 후반기(9~12월) 한번 구역과 성당(지하강당)에서 연간 두 번 거행됩니다.
- 구역, 반모임, 형제모임은 구역별 실시합니다.

● 다음 주일(1/21) 국수잔치 / 청소

국수잔치	16구역	청 소	6구역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 성체 분배자 명단

날짜	특전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1/14	장인홍	박승환	박형순 황태영 최상남	최석준	최승일
1/21	장인홍	박승환	박용환 손상민 최석준	김광수	최승일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1/14	이은희	서윤석 유숙종 오성환 신종구	최승일 정재경
1/21	유명진	김현철 최상림 임공섭 하재민	김인기 이영민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 8,698,000원
- 주일헌금 6,297,950원
- 감사헌금 이준기 3만원 안옥순 2만원 임연례10만원
남서울떡집20만원 장연순10만원 강성지3만원
서덕열10만원 김복순 8만원 정재호10만원
전필순 5만원 정윤남 5만원 김현철 5만원
한경자100만원 유춘교10만원 익 명 3만원
강미자100만원 청년연합회10만원

회답송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저는당신 뜻 즐겨 이루 나이다

교무금 통장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써 주세요.)

2018년 본당 사목 목표 -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 실천 사항

1. '감사합니다'의 생활화 (나, 가족, 타인, 하느님)
2. 소외된 이웃에 사랑 전하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 냉담자, 예비자)
3. 하느님께 사랑 전하기 (배우기, 희생하기)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 합니다 (2017년 11월~12월 전입교우)

구역 반	성 명	세 례 명	이전 본당	구역 반	성 명	세 례 명	이전 본당
01-01	이동휘	요셉	서울대교구	14-04	오정숙	베로니카	서울대교구 / 창동
01-06	이현일	프린치스코	서울대교구 / 양재동	15-01	이성희	스테파노	서울대교구 / 옥수동
01-06	구교준	요한	군중교구 / 병사세례	15-02	신은진	율리아나	수원교구
02-07	박금례	마리아	서울대교구	15-04	지승한	예레미아	서울대교구 / 한강
02-10	유승예	아네스	서울대교구 / 구로2동	18-03	유재윤	요한	의정부교구 / 원당
02-10	안원노	아모스	서울대교구 / 낙성대동	19-01	김봉옥	안나	서울대교구 / 개포동
13-02	강지선	마르타	서울대교구 / 구로1동	21-04	성범수	루카	군중교구 / 병사세례
14-01	박문수	안셀모	인천교구 / 작전동	22-03	최명수	베드로	서울대교구

* 구역장, 반장님은 연락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전액 무료)

- 오라토리오 봉사자를 찾습니다 !
- 시 간 : 15시~18시까지
※ 놀이 교재가 필요합니다. (레고, 블록, 도미노, 초등학교 학습교재, 참고서, 익힘 책)
- 후원금계좌 : 신 협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국 제 미 사

- 영 어 미 사
- 일시 / 장소 : 주일 16시 / 교육관(소성전)
- 중 국 어 미 사
- 일시 / 장소 : 주일 11시 / 가리봉동 지역아동센터

● 한 국 어 교 실

- 일 시 : - 화, 목요일 저녁 7시 (19:00)
- 수, 금요일 오전 10시30분 (10:30)
- 토, 일요일 오후 1시 (13:00)
- 장 소 : 가리봉동 지역아동센터
-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어를 가르칠 봉사자를 초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85. 어떻게 네 가지 원리가 함께 작용하나요?

모든 원리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각각 분리하거나 대립시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들을 함께 적용할 때 사회의 현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은 소중한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실재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을 펼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 자체로 연대성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다른 사람들의 연대성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공동선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위기관은 그러한 도움을 베푸는 가운데 가정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훈육을 가정에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86. 왜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나요?

인간의 존재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사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맡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공동선에 봉사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동체의 독자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윤리적으로 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